

심비디움 문제해충 달팽이 유인트랩과 방제약제 활용

이광주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친환경연구과 064)760-7332

심비디움은 서양란의 일종으로 제주지역에서 재배되어 해외로 매년 20만본(80~100만본)이 수출되고 있다. 심비디움은 라틴어로 '물 위의 배'라는 의미를 가졌듯이 물과 습한 환경을 좋아하는 식물로 생육기에 아침 저녁으로 4~5회 물을 주기 때문에 달팽이의 발생이 많아 농가에서 방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심비디움의 문제해충 달팽이는?

심비디움에 발생하여 피해를 주는 달팽이는 달팽이, 민달팽이, 작은뽕족민달팽이 등 3종이며, 그 중 작은뽕족민달팽이가 가장 많이 발생하며 큰 피해를 주고 있다.



달팽이



민달팽이



작은뽕족민달팽이와 피해 모습

○ 기존 달팽이 방제방법의 한계점

달팽이의 몸은 표피가 두껍고 점질액이 많아 농약을 살포해도 잘 부착되지 않아 방제가 어렵다. 따라서 방제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 필요한데 외국에서는 구리테이프와 구리 매트 등을 과수원이나 화훼재배에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방제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심비디움 농가에서는 황산동이나 에토프로포스 입제 등을 연 2회 이상 살포하고 겨울철 개화기에 접어들면 일일이 화분에 적용약제를 3~5g씩 올려주고 있으나 달팽이 발생 밀도가 높으면 효과가 떨어져 상품 수량이 크게 감소하고 품질도 떨어뜨린다.

○ 달팽이 유인트랩은 어떻게 활용하나?

상시 관수에도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덮개가 있는 트랩을 활용한다. 심비디움 하우스 (폭 5.5m)의 보온 커튼이 겹쳐진 가장자리를 따라 5m 간격으로 유인트랩 설치하도록 한다. 이 때는 가격이 저렴하고 유인 살충효과가 높은 선발 약제(인산철 1.5% + 메트알데하이드 7% 입제)를 트랩당 10g씩 자체 용기에 투입하고 1주일 간격으로 확인 후 약제가 물에 녹거나 비었을 경우 교환하면 된다. 트랩 설치시기는 달팽이 알이 부화하는 봄(4~6월), 가을(10~12월)이며 정기적으로 트랩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